

언어 구조의 다차원성과 학교문법의 연결어미 교육 내용

유 혜 령

□ 차 례

1. 머리말
2. 언어구조의 다차원성
3. 연결어미 오류의 유형별 양상
4. 학교문법의 연결어미 교육 내용 개선 방안
5. 맺음말

1. 머리말

어미와 조사가 발달한 국어에서는 대부분의 중요한 문법적 정보들이 서술어의 활용을 담당하는 어미에 담겨져 있다. 특히 연결어미는 언어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태와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의미관계를 표출할 수 있는 논리적 언어형식이므로, 연결어미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선택과 사용은 문장의 의미 구성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문장의 범위를 넘어 텍스트의 차원에서 볼 때도, 기본적으로 문장 안에서 논리적인 연결 관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텍스트 전체의 통일성도 가능하다. 국어교육에서 문장 내의 기본적인 논리관계를 담당하는 연결어미

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도하지 않는다면, 텍스트의 통일성이나 논리성을 아무리 강조하여 지도한다 해도, 교육적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결어미 관련 교육 내용이 학교문법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형태·통사론지식 중심인 과거 전통문법식의 교육 내용을 답습한다면, 국어 사용 능력의 질적인 향상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문법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국어과의 하위영역은 국어지식 영역이다. 국어지식 영역의 목표는 ‘국어 관련 지식의 습득’, ‘탐구 능력의 신장’,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 ‘국어에 대한 태도 및 가치 형성’ 등으로 범주화 되는데, 흔히 문법 지식은 ‘국어 관련 지식의 습득’이라는 목표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 결과, 문법 지식의 교육은 교육적 효용성과 필요성, 흥미 등 모든 면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학교에서 교수·학습되는 문법 지식의 교육이 그간의 비판에서 벗어나, 교육적 당위성과 효용성을 획득하려면,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본고는 연결어미가 가진 의미와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문법에서 다루는 연결어미 교육 내용이 실제 언어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문법 교육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는 교육 내용의 선정, 교육 내용의 기술 방식, 교수·학습 방안, 평가 등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특히 교육 내용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2. 언어구조의 다차원성

‘교육 내용의 구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측면은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교육 내용의 기술방식’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흔히 문법지식 또는 국어지식이 수행성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 내용의 기술방식이나 교수·학습 방안의 개선에 초점을 둔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사실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 내용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교육과정 상에 내용 항목으로 제시되는 ‘교육 내용의 선정’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국어지식 영역 또는 학교문법에 관한 논의들에서 다루어 왔던 ‘교육 내용의 선정’에 대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지식 항목들이 교육과정에서 선택되어 체계화되고 위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만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선정된 교육 내용 항목 각각을 교재화할 때, 그간 축적되어 온 수많은 연구 성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교육 내용으로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의외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정리·요약하여 여과 없이 그대로 문법 교육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만 무성했지, 정작 각각의 교육 내용 항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여 구조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교육과정 상에 추상적으로 제시된 내용 항목이 교재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구성에는 미처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바로 그러한 단계에 초점을 두고,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에 도움이 되는 연결어미 교육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결어미와 관련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Larsen -Freeman(2001: 34-48)이 주장한, 의사소통 상의 언어가 가지는 3차원적 구조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다.

Larsen-Freeman(2001: 34-48)은 언어의 하부 조직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의사소통 상의 언어는 3차원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언어교육도 3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3차원의 언어 구조란 형식의 차원, 의미의 차원, 사용의 차원을 말한다.

3차원의 언어 구조 중 ‘형식의 차원’은 ‘언어표현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와 관련된 차원으로서, 가시적이고 가청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층위를 말한다. 말소리 체계, 문자 체계, 형태소, 통사 구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제까지 언어학의 주된 논의대상이었던 언어형식의 측면은 언어의 3차원 구조 중 단지 하나의 차원일 뿐이라는 것이다. ‘의미

의 차원'은 '표현된 언어형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관련된 차원으로, 탈문맥적인 언어형식의 기본적인 의미를 말한다. 즉 어휘나 형태소 등의 사전적 의미로서의 개념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용 또는 화용론의 차원'은 '표현된 언어형식이 '언제' 사용되었는가, 또는 '왜' 사용되었는가'와 관련된 차원으로, 실제로 언어를 사용할 때 사전적 정의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실현되는 의미를 말한다. 화행과 같은 사회적 기능이나 텍스트 내의 응결성에 기여하는 담화 패턴 등이 이와 관련된다.

문법을 알고 문법에 맞게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언어표현을 형식적으로만 정확히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소 배합이나 통사 구조의 규칙에 맞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나 화용적으로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가지 차원은 각각 전형적인 고유의 단위와 관련된다. 즉, 형식의 차원에는 언어형식 단위, 의미의 차원에는 의미의 단위, 사용의 차원에는 기능이나 담화패턴과 같은 화용적 단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위는 고유의 해당 차원 안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과 모두 관련되므로 한 언어 표현의 의미는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전달된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려면 이러한 세 가지 언어 차원의 작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3차원의 역동적인 구조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그러한 지식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시간적 의미도 언어의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모두 표현될 수 있다.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는 시제 선어말어미로 시간적 의미를 표현하면 형식의 차원을 통해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오늘'이나 '그 다음에' 등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의 단위를 통해서 시간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시간적 의미는 이 밖에도 텍스트에 선형적으로 놓인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또는 텍스트 상에서 연관되는 사건에 의해서 화용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연결어미를 문법 형태소 또는 형식 형태소로 간주하는 것은 언어의 3차원 구조 중 형식의 차원에 해당한다. 연결어미는 형식 차원의 전형적인 단위 중 하나인 형태소로서,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여 절과 절을 연결하는 형식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연결어미는 화자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의미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선택하는 연결어미에 따라 상대방에게 화용적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고, 구어체나 문어체와 같은 문체를 표현하는 기능도 한다.

따라서 국어지식 영역 또는 학교문법에서 연결어미의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도, 언어의 형식 차원, 의미 차원, 화용 차원의 지식들을 모두 포함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시켜야,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연결어미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연결어미 관련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형식의 차원인 형태론적 지식과 통사론적 지식, 의미의 차원인 의미론적 지식, 사용의 차원인 화용론적 지식을 모두 망라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3. 연결어미 오류의 유형별 양상

문법 교육의 연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교육적으로 유용한 문법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어미 교육 내용을 교육적으로 유용하게 구성하려면, 언어 구조의 다차원성을 인식하고, 형태, 통사, 의미, 화용의 층위를 망라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불어 학습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탐색한다면, 학교에서 교수·학습되는 문법 지식이 실제 언어 사용에 대단히 유용할 것임이 확실하다. 이제는 현장에 대한 경험적인 조사나 연구 없이 만들어진 이론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교육 이론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을 토대로 하여, 이 장에서는 형태적 오류, 통사적 오류, 의미적 오류, 화용적 오류로 오류 유형을 분류하고, 중학생들의 쓰

기 자료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오류를 분석하였다.¹⁾

모국어이전 외국어이전 상관없이, 학습자의 오류는 학습자의 언어능력과 언어체계를 명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오류는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현재의 학습과정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보이는 오류를 통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든지 학습자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육과정과 교재를 구안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

오류의 유형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논자마다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²⁾ 오류는 대치, 첨가, 누락 등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주로 어휘 사용의 측면에서 오류를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연결어미의 경우는 어휘와는 다른 문법 형태소이므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연결어미는 문법형태소여서 형태적 층위에서 어간에 결합하지만, 문장 전체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사적 층위에서도 기능하며, 선행절과 후행절의 논리적 관계를 표출하므로 의미적 층위와도 관련된다. 때로는 한 문장의 범위를 넘어 화자의 의도나 맥락에 따른 화용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언어의 3차원적 구조와도 부합하

1) 본고에서 연결어미의 오류를 분석한 자료는 서울시 덕산 중학교 1, 2, 3학년 각각 2개 반(총 6개 반)의 남녀 학생 203 명이 작성한 것이다. 이 자료는 2004년 6월에 작성한 국어과 관련 자료로서,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담당교사를 통해 입수하였다.

이 자료는 지정된 작문 시간에 학생들에게 세 가지 논제를 주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60분 동안 1000자 원고지에 자필로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2) 보통 외국어 교육이나 제2언어 교육에서 다루는 오류 분석에서는 오류의 유형을 크게 '원인에 의한 분류'와 '결과의 판정에 의한 분류'로 나눈다. '원인에 의한 분류'는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목표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로 다시 구분되며, '결과의 판정에 의한 오류'는 '범주별 오류', '현상에 따른 오류', '정도에 따른 오류'로 구분된다. '범주별 오류'는 다시 '발음 오류', '문법 오류', '어휘 오류'로 하위분류하고, '현상에 따른 오류'는 '대치', '누락', '첨가'로, '정도에 따른 오류'는 '전체적 오류'와 '부분적 오류'로 분류한다. 이정희(2002: 49-88) 참조

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결어미의 오류 유형을 네 가지 언어 층위별로 구분하여 오류를 분석한다. 언어 층위별 오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1)과 같다.³⁾

(1) ㄱ. 형태적 오류: 철자 및 어문규정에 관련된 오류

- ① 맞춤법이 틀린 경우
- ② 띄어쓰기가 틀린 경우

ㄴ. 통사적 오류: 문장구성과 통사구조의 문제와 관련된 오류

- ① 연결어미가 가진 통사적 제약을 어겨서 비문이 된 경우
- ② 동일한 연결어미의 반복으로 전체 문장이 부적절해진 경우
- ③ 다른 어말어미를 사용해야 할 곳에 연결어미를 사용한 경우
- ④ 연결어미가 사용되어야 할 곳에 다른 어말어미를 사용한 경우

ㄷ. 의미적 오류: 선·후행절의 의미관계에 부적절한 연결어미의 사용과 관련된 오류

- ① 의미관계가 다른 연결어미로 대치된 경우

ㄹ. 화용적 오류: 구어적 표현과 관련된 연결어미를 사용하거나 연결어미를 다른 형태소와 축약하는 등 연결어미를 논술문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오류⁴⁾

3) 언어 층위별로 구분한 네 가지 오류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덕산중학교 학생들의 쓰기자료에서 뽑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형태적 오류

몸짱이나 얼짱은 스타들이 인기가 많으려고 하는 것이지 꼭 자신도 그렇게 되야 한다는 편견은 없다.

ㄴ. 통사적 오류

옛날에는 차별을 심하게 했어서 그게 이해가 안 간다.

ㄷ. 의미적 오류

사람들이 외출을 하면서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기 때문이다.

ㄹ. 화용적 오류

이렇듯 사소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다루어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하는 나라가 되었을 좋겠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줄고(2005:78-84)를 참조할 것.

4) 본고에서 분석한 자료는 논술문으로서, 문어적 특성을 강하게 보이는 장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연결어미를 통하여 논술문의 문체에 부적절한 구어적 표현을 나타냈을 경우에 이를 화용적 오류로 처리하였다.

- ① 연결어미의 줄임형 사용
- ②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줄임형 사용
- ③ 연결어미를 문장종결형으로 사용

우선 중학생 203명의 쓰기 자료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오류를 분석한 결과, 연결어미의 활용 빈도 5117회 중에서 오류 빈도가 563회로 나타났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학생들은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11%의 오류율을 보인 것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학생들이 10개의 문장을 생성할 때 그 중 1개 정도의 문장은 연결어미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치는 외국어 교육이나 제2언어 교육이 아닌 모국어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상보다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언어습득이 끝난 모국어라도 그 언어 규칙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습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로 습득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높은 수준의 언어 사용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McArthur(1983:73-77)는 문법을 ‘1차적 또는 선천적 문법’[primary or natural grammar]과 ‘2차적 또는 분석적 문법’[secondary or analytical

연결어미의 구어적 표현과 관련된 오류가 모두 줄임말의 사용과 관련된 것은 줄임말을 흔히 사용하는 구어의 특징 때문이다. 따라서 문어에서 줄임말을 사용하게 되면 구어적 효과가 나므로 문체적으로 부적절하게 된다.

국어의 문어와 구어는 상당히 상이한 문법적 특성을 보인다. 특히 구어에서는 줄임말의 사용이 흔한데, 문어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다. 노대규(1994)에서는 국어의 문어와 구어의 음운론적 특성을 비교하여 논의하였는데 그 중에서 문어와 구어의 차이점을 몇 가지 보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어에서는 두 음절이 한 음절 사잇소리나 겹소리처럼 축약되거나,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축약되어 쓰이는 경우가 흔하나 문어에서는 축약 현상이 드물다. 둘째, 구어에서는 한 단어의 내부나 한 단어와 다른 요소가 결합할 때에, 자음이나 모음이나 또는 보조사가 첨가되어 쓰이는 일이 많은데 문어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셋째, 구어에서는 체언과 조사가 통합할 때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첨가될 때에, 생략과 첨가가 동시에 이루어져 쓰이는 경우가 흔하지만 문어에서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다.

grammar]으로 구분하고 모국어 화자가 별도의 교육 없이도 모국어를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까닭은 1차적인 문법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1차적 문법'만으로는 고차원적인 국어사용 능력을 기를 수 없으므로, 잘못된 언어의 사용을 교정하고 효과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또한 개인의 문법 편차를 최대한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분석적이고 의식적인 '2차적 문법'이 필요하다(박영목·한철우·윤희원, 1996: 229).

주세형(2004: 39)에서도, 미숙련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낙관적으로 간주하여 의도적 교육 과정을 처방하지 않고 잠재적 학습의 힘만 믿는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 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언어 활동에서 필요한 '언어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이를 문법 영역에서 기초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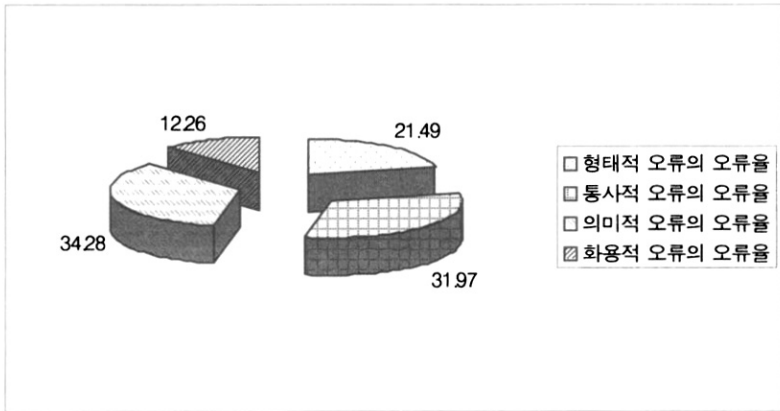
모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언어습득이 어느 정도 완결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모국어의 언어 규칙과 같은 문법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거나, 문법 교육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최현섭 외, 2005: 25-30), 앞에서 분석된 연결어미 오류율은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 문법 지도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

위의 (1)에 제시한 연결어미의 오류 유형 분류의 기준에 따라, 중학생의 쓰기 자료에 나타난 연결어미 오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의 양상을 보였다.

형태적 오류는 121회의 빈도를 보여 연결어미 전체 오류에서 21.49%를 차지했다. 통사적 오류는 180회의 빈도로 31.97%의 오류율을 보였다. 의미적 오류는 193회의 빈도를 나타내어, 연결어미 전체 오류 중 34.28%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화용적 오류는 69회의 빈도로 오류 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12.26%를 차지했다. 이를 표와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결어미의 오류 유형별 양상

오류유형	형태적 오류	통사적 오류	의미적 오류	화용적 오류
오류빈도(회)	121	180	193	69
오류율(%)	21.49	31.97	34.28	12.26



<그림 1> 연결어미의 오류 유형별 오류율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오류는 형태적 층위, 통사적 층위, 의미적 층위, 화용적 층위에서 각각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주로 형식의 차원에 치우쳐서 기술되어 있는 현행 연결어미 교육 내용을 개선하여, 학습자들이 언어의 다차원적인 하부 구조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의 모든 층위를 망라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국어지식 영역 또는 학교문법에서 다루는 연결어미 관련 교육 내용이 이제는 과거의 전통 문법의 내용이나 국어학계의 연구 결과를 요약·축소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교육문법을 구성하는 하나의 지식 요소로서 창의적인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으로 가공되어야 한다.

4. 학교문법의 연결어미 교육 내용 개선 방안

교육적으로 유용한 문법 지식은 탈문맥적이거나 언어 사용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살아있는 언어와 직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앞의 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 상의 동적인 언어는 언어 형식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의미의 차원이나 사용의 차원과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구조를 가진다.

학교문법에서 다루는 연결어미 교육 내용도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에 기여하려면, 형태, 통사, 의미, 화용의 모든 언어 층위와 관련된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중학생들의 쓰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학생들이 각각의 언어 층위별로 일정한 오류 양상을 나타냈으므로, 학교문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연결어미의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선 기존의 학교문법에서 연결어미 교육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통해 검토해 보고, 연결어미 교육 내용의 개선 방안을 형식의 차원, 의미의 차원, 화용의 차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다.⁵⁾

5) 오류 유형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중학생의 자료인데 반해서, 연결어미 교육 내용에 대한 교과서 분석을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이유를 다음에 제시한다.

우선 중학생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일반적으로 언어습득이 완결되었다고 간주되는 연령 이후의 학생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 어느 정도의 오류율을 보이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에서이다. 언어 습득의 논의에서는 학자에 따라 성인기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춘기에 도달한 사람부터 성인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Brown, H. D. 1980: 60-61). 또한 이 시기는 Piaget의 ‘형식적 조작기(12세-15세)’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대부분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을 지니므로 아무리 복잡한 언어적 문제라 하더라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한편,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만을 분석한 이유는 국어과의 국민기본공통 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에서는 연결어미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과목에는 3학년과 6학년의 내용 항목이 다음의 (1)과 같이 제시되어 있긴 하나, 해당 항목이 교재로 실현된 부분들을 교과서에서 찾아 검토해 본 결과, 접속부사만을 다루고 있고 어디

4.1. 고등학교 ‘문법’과목에 기술된 연결어미 교육 내용

연결어미는 그 종류와 의미, 기능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한국어의 첨가어적인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형식 형태소이다. 그런 까닭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주며, 모국어 학습자들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오류를 생산하게 한다. 그러나 막상 각급 학교의 국어과에서는 연결어미 체계가 교육 내용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다루어지더라도 매우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어과에서 문법 지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영역은 국어지식 영역인데,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연결어미 관련 교육 내용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진 곳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연결어미 교육 내용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문법’ 교과서의 검토를 통해서 현행 문법 교육에서의 연결어미 지도 실태를 파악하여 본다.

‘문법’은 국어 과목의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킨 것으로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 이수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심화선택 과목 중의 하나이다. 교육과정 상에 제시된 문법 과목의 내용 항목 중에서 연결어미 체계와 관련된 것을 뽑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ㄱ. (2) 국어알기

(나) 단어의 갈래와 형성

① 국어의 품사 분류와 그 기준을 이해한다.

에도 연결어미 또는 연결어미와 관련된 내용을 지도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1) [3-국-(3)] 이어 주는 말의 기능을 안다.

기본 : 글에서 이어 주는 말을 찾는다.

심화 :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6-국-(4)]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안다.

기본 :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안다.

심화 :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고,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가 자연스러운지 말한다.

(라) 문장의 구성 요소와 짜임새

- ① 국어의 문장 성분과 구조를 이해한다.
- ② 국어 문법 요소의 기능과 그 의미를 이해한다.
- ③ 국어 문장의 여러 가지 짜임새를 이해한다.

(바) 문장과 담화

- ② 담화의 표현 및 이해에 작용하는 요소를 이해한다.
- ③ 담화의 구조를 이해한다.

ㄴ. (3) 국어 가꾸기

(가) 국어 사용의 규범

- ①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서 이를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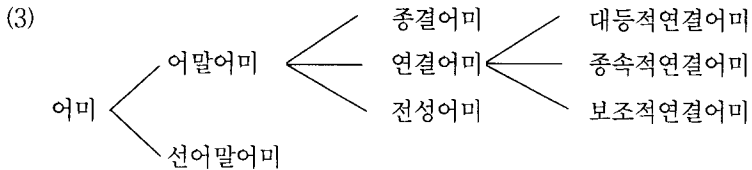
(나) 정확한 국어 생활

- ② 조사, 어미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 ④ 논리적이며 응집성 있는 담화를 생산한다.

‘문법’ 과목에서 연결어미 체계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우선 (2 ㄱ)의 ‘단어의 갈래와 형성’ 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단어의 갈래와 형성’은 문법 과목의 내용 체계상 지식 요소에 해당하는 ‘국어 알기’ 범주에 속하는 내용 항목이다.⁶⁾ 연결어미 체계의 교육 내용은 ‘문법’ 교과서의 3단원 ‘단어’ 중 소단원 ‘품사’의 ‘용언의 활용’ 부분에 종결어미, 전성어미와 함께 어미 체계의 일부로 제시되어 있다. 그 밖에 연결어미의 하위부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제시된 글에서 어미들을 찾아 종류별로 구분하는 활동이 전부이다.

6) 문법 과목의 내용 체계는 크게 지식 요소과 태도 요소로 구분되는 데 지식 요소에 해당하는 범주에는 ‘언어와 국어’, ‘국어 알기’ 범주가 있고, 태도 요소에 해당하는 범주에는 ‘국어 가꾸기’가 있다. ‘언어와 국어’는 명제적 지식으로 이루어진 국어에 대한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내용이고, ‘국어 알기’는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실용성과 결합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며, ‘국어가꾸기’는 태도 형성과 행동의 실천을 의도하는 실제적인 내용이다. 이 중 ‘국어알기’ 범주는 음운의 체계와 변동, 단어의 갈래와 형성, 국어의 어휘, 문장의 구성 요소와 짜임새, 단어의 의미, 문장과 담화의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연결어미 관련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연결어미 관련 교육 내용은 (2 ㄱ)의 ‘문장의 구성 요소와 짜임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내용 항목은 5단원 ‘문장’에 구현되어 있는데, 연결어미는 그 중 ‘문장의 짜임’에서 이어진 문장과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사형 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의 명확한 구분 문제를 보류하고, 이견들에 모두 가능성을 두는 기술을 하고 있다.⁷⁾ 이와 관련하여 국어 어미의 하위분류 체계를 다음 (3)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교육 인적 자원부, 2002: 103)



또한 접속문에 대해 ‘홀문장 두 개가 이어지는 방법이 어떠한가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고 하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다음의 (4)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ㄱ.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눈이 내리지만, 날씨가 춥지는 않다.”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이어지는 홀문장들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앞 절은 뒤 절과 ‘나열, 대조’등의 의미 관계를 갖는다.

7) ‘부사절을 안은 문장’에는 “ ‘길이 비가 와서 길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어에서 ‘-(아)서’와 같은 종속적 연결 어미로 된 절들은 부사절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라는 설명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164)

한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국어에서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들은 부사절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하여(교육인적자원부, 2002: 168) 두 견해에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이 때 앞 절과 뒤 절이 어떠한 의미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속적 연결어미가 사용된다. 예를 들면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서’는 원인, ‘-(으)면’은 조건, ‘-(으)려고’는 의도, ‘-는데’는 배경, ‘-(으)르더라도’는 양보의 의미를 띠고 있다. 대등적 연결어미의 숫자가 ‘-고, -(으)며, -든지, -지만’ 등은 얼마 되지 않는 데 비하여, 종속적 연결어미는 그 숫자가 매우 많다.

위의 (3), (4)를 보면 학교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연결어미 관련 교육 내용은 연결어미의 하위분류 체계와, 접속문의 통사적 특성에 따른 대등절과 종속절의 구분, 연결어미의 의미관계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문 이외의 ‘탐구 학습’이나 ‘가꾸기’에 제시된 활동들에서도 연결어미 관련 학습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을 보자

(5) ㄱ. 다음 글은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이 글을 간명하게 고쳐 보고 이 글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자.

ㄴ. 다음은 한국어어를 배우고 있는 고급반 외국인 학생이 쓴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바른 문장 사용에 대하여 더 생각하여 보자.

- 어휘나 띄어쓰기 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 고쳐 보자.
-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요소들을 잘못 사용한 부분을 찾아 고쳐보자.
- 고친 부분을 서로 비교하여 보자.

(5ㄱ, ㄴ)은 ‘문장의 짜임’과 같은 대단원에 속하는 ‘문장의 성분’에 있는 ‘가꾸기’ 활동인데, 오히려 ‘문장의 짜임’과 관련된 활동이 제시되어 본문과의 관련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문장의 짜임’에 제시된 연결어미 관련 학습 활동은 다음 (6)과 같다.

(6) ㄱ. 다음의 국어 표현들 가운데 겹문장은 어느 것인지 찾아보자.

ㄴ. 다음의 문장들이 홑문장인지 겹문장인지 판단하여 보자, 그렇게

판단한 이유도 함께 이야기하여 보자.

ㄷ. 다음 자료로 부사절을 모듬별로 탐구하여 보자.

- 위 문장에서 부사절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 위 문장 중 (다), (라)가 ‘부사절’을 안은 문장인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 토론하여 보자.
- 이 때 사용된 ‘-게, -도록’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생각하여 보자.

ㄹ. 다음 표어들을 바탕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모듬별로 탐구하여 보자.

- 앞 절과 뒤 절을 이어 주는 문법 요소를 찾아 밑줄을 그어 보고, 이 둘의 의미 관계를 이야기하여 보자.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형식을 활용하여 ‘건강’을 주체로 하는 표어를 각자 만들어 보고, 이를 모듬별로 발표하여 보자.

ㅁ. 다음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함께 탐구하여 보자.

- 위 문장들에서 앞 절과 뒤 절을 종속적으로 이어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어떠한 의미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자.
- 속담이나 표어 중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예를 찾아보고, 모듬별로 발표하여 보자.

위의 (6)에 제시된 연결어미 관련 학습 활동은 모두 탐구 학습이다. ‘탐구’는 각 소단원 뒤에 들어가며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하여 앞서 배운 문법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한편 각 중단원 뒤에 들어가는 ‘가꾸기’는 앞서 학습한 지식을 실제 언어 생활에 직접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언어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실제 언어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한 활동이다.

그러나 ‘탐구’나 ‘가꾸기’ 활동 역시, 의사소통 과정에 있는 동적인 언어의 다차원적인 구조를 잘 드러내 보이지 못한 채, 통사적 차원이나 의미적 차원의 일부분에 국한된 내용만을 단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나마 통사적 차원의 내용들은 부사절과 종속절의 구분이나 대등절과 종속절의 판별 여부에 집착하고 있어, 실제 언어 사용과는 무관한 기술을 보

이고 있다.

또한 학교문법에 연결어미의 하위분류 체계로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만 두고 있는 것도 연결어미 교육 내용의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일뿐더러, 지금의 학교문법이 가진 교육 문법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4.2. 연결어미 교육 내용의 개선 방안

다른 문법 지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연결어미 체계의 교육 내용이 교육적 가치와 효용을 충분히 획득하려면, 내용적인 면에서 언어 형식의 차원, 의미의 차원, 사용의 차원을 모두 포괄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관련시켜서 언어에 대해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이 보여준 연결어미 오류의 유형별 양상도, 연결어미 교육 내용 구성에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였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학교문법에서 다루어야 할 연결어미 교육 내용을 형식의 차원, 의미의 차원, 사용의 차원으로 나누어 간단히 정리해 본다.

4.2.1. 형식의 차원

기존의 형태론적 지식과 통사론적 지식이 형식 차원의 지식에 해당한다.

우선 형태론적 지식은 연결어미의 올바른 형태를 알게 하고, 특히 불규칙 용언과 결합했을 때 맞춤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기존의 연결어미 관련 교육 내용은 대등절과 종속절의 구분이나 종속절과 부사절의 판별 여부 등 통사론적 지식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그러한 지식은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통사론적 지식 모두가 언어 사용에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통사론적 지식에는 연결어미의 접속 대상과 개별적 연결어미가 가지는

통사적 제약이 포함된다. 연결어미를 접속 대상으로 구분하면 절 연결어미와 보조적 연결어미로 나뉜다.⁸⁾ 절 연결어미란 기존의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를 통합한 개념인데, 절과 절을 접속하여 문장을 확장하는 기능이, 보조용언 구성에 관여하는 보조적 연결어미와 확연히 다르므로 이들의 구별은 필요하다.

또한 연결어미의 통사적 제약은 선·후행절의 주어 일치 여부, 선·후행절의 시제 형태소 출현 여부, 선·후행절의 서법 일치 여부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지식은 학생들의 비문 생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2.2. 의미의 차원

연결어미에 대한 교육 내용 중, 의미의 차원에 대한 지식은 절 연결어미에 해당된다. 보조적 연결어미는 보조용언 구성 안에서, 후행하는 보조용언과 함께 하나의 덩어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절 연결어미는 언어 사용자가, 접속되는 선·후행절의 논리적인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의 분류는 분류 기준이 다분히 주관적이며 논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연결어미의 의미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 전체적인 체계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⁹⁾ 이러한 계층적인 의미 구조를 통해 연결어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고’와 같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의미관계를 가진 연결어미일수록 통사적 제약이 적고,

8)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를 합친 개념인 절 연결어미는 절과 절을 접속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만든 용어이다. 보조적 연결어미와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용어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한다.

9) 장경희(1995)에 의하면, 연결어미들이 표현하는 의미관계는 전체적으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유효성에 의해서 하위 범주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동일한 의미 관계가 여러 가지 연결어미를 통해서 표현되거나 또는 동일한 연결어미가 동의적이거나 다의적으로 여러 의미관계에 쓰이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연결어미의 계층적 의미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경희(1995)를 참조할 것.

분포는 넓어지며, 따라서 사용 빈도도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으)ㄴ들, -거든’ 등과 같이 특수적이고 구체적인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일 수록 통사적 제약이 많고 분포가 좁고, 사용 빈도도 낮아지게 된다.

학생들에게 막연한 형태의 규칙이나 문장 구조의 대등성과 종속성의 구별 등 언어사용과는 거리가 있는 개념을 가르치는 것 대신에, 연결어미의 계층적인 전체 의미 구조를 통사적 제약이나 분포와 관련지어 가르치는 것은 실제 문장을 구사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2.3. 사용의 차원

연결어미 교육 내용 중 사용의 차원에 해당하는 지식은 현행 교과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화용론이나 텍스트 언어학, 담화 분석 관련 지식의 중요성이 점차로 인정되어, 발화의 기능이나 응결장치, 담화 패턴 등의 지식이 국어과에 일부 반영되어 있긴 하다. 특히,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이야기’라는 하나의 대단원을 구성하여, 언어 사용의 차원에 해당하는 지식들을 교육 내용으로 기술한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들이 형식 차원이나 의미 차원의 지식들과 분리되지 않고, 잘 연계되도록 기술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다.

연결어미의 경우, 사용의 차원에 해당하는 지식으로서, 연결어미가 표현하는 문체적 특성을 언급할 수 있다. 담화나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언어사용자는 문체적으로 적절한 연결어미 부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연결어미를 구분하면, 주로 문어체 문어에서 사용되는 문어체 연결어미와 문체적 특성에 상관없이 두루 사용될 수 있는 연결어미 부류로 나뉜다.

5. 맺음말

문법 교육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들은, 문법 지식이 “수행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원인을 교육 내용 기술 방식의 문제로만 보고, 문법 지

식의 기술 방식이나 교수법의 개선에서만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술 방식이나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우선하여, 개별적인 내용 항목을 구성하는 지식들의 성격이, 문법 지식의 수행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즉, 국어학의 연구 성과를 무조건 요약하거나 과거에 다루었던 내용을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성과들을 추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연결어미 교육 내용 역시 교육적 효용성을 획득하려면, 연결어미 체계라는 개별 내용 항목 안에서의 세부적인 내용 선정 작업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 때, 가장 필요한 원칙으로 교육 내용의 다차원성을 언급하였다. 언어 형식의 차원, 의미의 차원, 사용의 차원의 세 가지 차원이 유기적으로 상호관련 되어야만 언어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중학생들의 쓰기 자료를 통한 연결어미 오류 분석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언어의 다차원적인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언어 사용과 별로 연관되지 않는 기존의 연결어미 교육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언어 형식의 차원에 해당하는 형태론적 지식과 통사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의미론적 지식과 화용론적 지식까지도 모두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연결어미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글 쓴 이: 유혜령

소 속: 한국교원대학교

전자우편: 2somox@hanmail.net

논문 접수: 2006. 04. 30.

게재 결정: 2006. 05. 30.

□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1998ㄱ),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1998ㄴ),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남돈(2003), 한글 맞춤법 오류 분석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한국어 교육』 18, 한국어문교육학회, 1-11쪽.
- 김수정(2002),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연구』 한국문화사.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박영목·한철우·윤희원 공저(1996), 『국어교육학 원론』, 교학사.
- 유혜령(2005), 국어지식 교육을 위한 국어 연결어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8-84쪽.
- 이정희(2002),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경희(1995), 국어 접속어미의 의미구조, 『한글』 227, 한글학회, 154-171쪽.
-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tstone, R. 1994,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rsen-Freeman, D. 2001, *Teaching Language : from grammar to grammaring*, Boston: Thomson Heinle.
- McArthur, T.(1983), *A Foundation Course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Abstract>

The Multi-dimension of Language Substructure and the Connective-Ending Teaching Contents in School Grammar

Yu Hye-rye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iscuss on the principle of 'the multi-dimension of language substructure' and the connective-ending teaching contents in school grammar.

This paper assert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ch tips the balance is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that consists of each content item, rather than the description method or teaching method. We have to break from just summarizing the research outputs of Korean Linguistics or repeating conventional grammar. It is important to abstract the research outputs that are useful to learner's competence.

In order that the connective ending teaching contents be constructed into pedagogically useful knowledge, we have to focus on selection of specific contents in the connective ending system. Then the author discussed on the multi-dimension of language substructure as the most necessary principle. The multi-dimension of language substructure is a dimension of form, a dimension of meaning, a dimension of us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multi-dimension', the connective ending teaching contents should involve every language dimension of teaching contents such as morphology, syntax, semantics and pragmatics. Only if these three dimensions be systematically related to each other,

learner can completely comprehend and express the language.

Therefore when it should be described in a textbook, we have to consist of the connective ending teaching contents relating with semantic and pragmatic knowledge as well as morphological and syntactic knowledge that belong to dimension of language form.

주제어: 다차원성, 연결어미, 형식의 차원, 의미의 차원, 사용의 차원
multi-dimension, connective-endings, dimension of form,
dimension of meaning, dimension of use